

# 이슈

2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3154호

김신욱은 벤투 감독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까

## 유연해진 벤투 “김신욱 특징 살릴 조합 구상”

(축구대표팀 감독)

투지 넘치는 박지성 발굴한 히딩크 체격 좋은 이동국 신뢰한 본프레레 감독 성향따라 선수 운영도 달라져

상대의 밀집수비 뚫을 장신 폭격기? 김신욱 첫 발탁 벤투의 활용법 관심

운동선수가 성장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누가 뭐래도 실력이다. 하지만 능력 말고도 다양한 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도자와의 궁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축구의 경우 국가대표팀을 맡은 외국인 감독이 다른 종목에 비해 많다보니 감독 성향에 따라 선수의 운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거스 히딩크 감독은 부지런하고 투지 넘치는 박지성이나 김남일 등을 발굴해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초석을 만들었다. 반면 엔트리에서 탈락한 이동국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 2006년 월드컵 본선을 목표로 영입된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은 아시아청소년선수권과 K리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박주영을 두고 “혹 불면 날아갈 것 같다”면서 처음엔 달가워하지 않았다. 체격조건을 우선시한 본프레레 감독은 이동국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다.



김신욱은 파울루 벤투 감독의 '수제자'가 될 수 있을까. 벤투 감독은 9월 시작될 2022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맞춰 김신욱을 처음 승선시켰다. 스포츠동아DB

안 김신욱을 선택지에서 배제해왔다. 자신의 빌드업 축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아시아의 즐라탄'으로 거듭난 김신욱에 대해 벤투는 “김신욱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조합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물론 소집 명단과 경기 투입은 별개의 문제다. 벤투도 “대표팀 스타일에 얼마나 적응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장신 공격수(197cm)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간 건 사실이다.

그동안 김신욱은 국내 대표팀 사령탑들과는 궁합이 잘 맞지 않았다. 허정무 감독의 2010년 월드컵에서는 가능성을 보였지만 본선에 발탁될 정도의 기량은 아니었다. 홍명보 감독의 2014년 월드컵에서는 기대가 컸지만 부응하지 못했다. 신태용 감독의 2018년 월드컵도 신통치 않았다. 상하이 선화를 맡고 있는 최강희 감독과는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지만 대표팀에서는 ‘계륵’으로 취급될 만큼 존재감이 흔들렸다.

그런 김신욱이 기회를 잡았다. 벤투 감독의 설명대로 김신욱은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다. 벤투 감독은 1월 아시안컵 실패를 거울삼아 상대 밀집 수비를 뚫을 방법 중 하나로 김신욱을 선택한 듯 하다. 자신의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김신욱을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있다. 김신욱은 살아남기 위해 더 간절해야 한다. ‘벤투 스타일’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다. 감독이 강조하는 기술과 연계 플레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벤투와 김신욱, 처음으로 엮여진 이들의 사제 궁합이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캡카, 미 프로골프협회 ‘올해의 선수’



캡카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는 27일(한국 시간) 올해의 선수로 브룩스 캠퍼(미국)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메이저 사냥꾼’으로 불리는 캠퍼는 올해 3승을 거둬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나란히 최다승을 기록했지만 메이저 대회 1승과 시즌 상금 1위를 앞세워 총 84점을 획득, 74점에 그친 매길로이를 따돌리고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승수, 상금, 평균타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시상하는 이 상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해의 선수와는 다른 상으로 PGA 투어 올해의 선수는 투어 회원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정한다. 1992년부터 미국프로골프협회와 PGA 투어 올해의 선수 수상자는 해마다 일치했다.

### 로또플레이 19억 1등 당첨자 또 배출! 1등 조합 총 242회 배출!

로또 1등 당첨자들 비결은? 로또플레이! 가입문의 1666-6645

**869회 19억 1등**  
1등, 2등 일체 당첨자 동시 배출!

제 869 회  
발행일 : 2019/07/27 (토) 16:07:44  
추첨일 : 2019/07/27 (토) 18:13:22

**미음이 (1년제 골드회원) 실제 1등 당첨!**

A 수	동	14	15	21	28	31	42
B 수	동	03	07	17	22	30	35
C 수	동	02	06	20	27	37	39
D 수	동	07	20	21	27	40	43
E 수	동	04	23	24	34	39	43

1년제 골드회원 가입 후 1년 마지막 날에 1등 당첨!  
869회 1등 당첨자 외 2등 일체 당첨자 동시 배출!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로또플레이’는 요행을 넘어 정확한 통계와 확실한 당첨 사례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또정보 업체다.

로또플레이는 한국 브랜드 고객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한국 소비자 선호도 1위 외 총 15개 부문 대상 수상을 하였고, 실제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1등 242회, 2등 1,282회, 3등 42,445회 조합을 배출해내고 있다. 실제 1등 당첨 복권과 당첨금 지급 영수증까지 공개하고 있어 신빙성까지 더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1등, 2등, 3등 당첨 후기들은 로또플레이(lottoplay.c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로또플레이’는 골드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님들께 10년이 넘는 분석 노하우와 자체 개발한 1등 분석 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분석 번호를 매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해 준다. (20게임/수량 변경 가능)

로또플레이 골드회원 가입 비용은 6개월 62,000원, 1년 88,000원, 3년 158,000원으로 대표번호 1666-6645 전화 한 통으로 가입이 간편하다. (카드 무이자 5개월 할부 가능)

홈페이지 : LOTTOPLAY.CO.KR  
가입문의 : 1666-6645



지난 869회 로또 1등 당첨자 이 씨는 "로또플레이 측에서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1등 분석 번호로 로또복권을 구매하였고, 토요일 저녁 8시경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번호 6개가 모두 일치, 로또 1등(16억 9천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이에 이 씨는 로또플레이 골드회원(3년제)으로 가입 후, 업체 측에서 보내준 분석 번호로 1년 동안 한주도 빠짐없이 꾸준히 구매했던 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전했다.

정 씨(47세/여성) 역시 골드회원으로 가입한지 5일 만 로또 1등(12억 6천만 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며 큰 화제가 되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로또플레이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로또 1등 당첨자라고 밝힌 50대 여성이 40억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2등과 3등이 동시에 당첨된 인증 사진과 후기를 전하며 ‘로또플레이’의 신뢰성과 분석

본프레레 경질 이후 지휘봉을 잡은 디아드보카트 감독 체제에서 황태자는 이호와 김동진이었다. 2018년 월드컵을 대비해 영입된 올리 슈틸리케 감독은 무명이 가깝던 공격수 이정협을 발굴해 중용했다. 이렇듯 감독의 성향은 선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2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앞두고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이 김신욱(상하이 선화)을 선발해 화제다. 벤투는 그들

### 예능시청률? 중·장년층 리모컨을 노려라

40·50 겨냥한 KBS 1 'TV는...' 7% KBS 2 '사장님 귀는...'도 7% 유지 SBS '미우세' 여전히 강세와도 상통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중요



KBS 1TV 'TV는 사랑을 싣고'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중장년층의 예능프로그램 ‘리모컨 파워’가 거세다. 최근 KBS 1TV ‘TV는 사랑을 싣고’ 등 40~50세대 시청자를 겨냥한 예능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다. 각 방송사가 저마다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내놓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라 더욱 눈길을 모은다.

2010년 종영했다 작년 9월 다시 시작한 ‘TV는 사랑을 싣고’는 최근 7%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금요일 강자’로 통하는 MBC ‘나 혼자 산다’가 평균 9%대인 점을 떠올리면 분명한 선전인 셈이다. 이에 1994년 시작해 16년 동안 방송한 프로그램이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했다는 시선이 잇따른다.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사장님 귀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 프로그램은 심영순 요리연구가(79), 프로농구 LG세이커스 현주엽 감독(44) 등이 회사 부하직원들과 지내는 모습을 담는다. 조현아 책임프로듀서는 27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출연자의 연령대를 고르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일요일 오후 5시대라는 방송 시간대도 다양한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덕분에 방송 4개월 만에 7%대의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의 성과는 각각 18%와 8%대인 SBS ‘미운 우리 새끼’(미우세),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살림남)의 여전히 강세

와도 무관하지 않다. 모두 중장년층 출연자를 내세워 폭넓은 연령층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결혼·직장생활 등 일상적인 소재를 다룬다. 조 책임프로듀서는 “핵심은 공감”이라며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함께 웃고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세대통합’ 콘텐츠의 가치가 여전히 크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콘텐츠 플랫폼의 다양화를 또 다른 요인으로 꼽는 시선도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TV뿐 아니라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본방사수’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 자연스레 중장년층이 주요 TV 시청층으로 떠올랐다”고 봤다. 이어 “시청률에만 매달린 채 중장년층을 겨냥해 과거 포맷을 반복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로또플레이 가입문의 1666-6645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